졸업 … '취업난' 긴 그림자

26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공대에서 열린 2009학년도 후기 졸업식을 마친 졸업생의 뒤 모습이 무겁게 느껴진다. 대졸자 중 절반 이상이 실업을 면치 못하는 취업난 속에 졸업생들의 고민이 깊어만 간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현섭 추가 비리 포착

〈前 여수시장〉

경찰, '이순신광장 사업' 거액 리베이트 수사

관련 자료 확보 … 재임시절 사업 전반 조사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의 재임 시절 진행된 대형 사업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야간경관조명업체 외에도 모 건설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경찰청과 여수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오 전 시장 재임 기간에 벌어진 여수시의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19일 도피 60일 만에 자수해 지난 21일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된 오 전 시장 등을 상대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460억원)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131억원), 인공해수욕장 조성사업(84억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비리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들 사업은 여수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됐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 수사를 통해 오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칫 여수시 전체가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특히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 발주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경찰은 지난 24일 이순신광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확보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등 각종 대형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자 선정과정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오 전 시장이 경관조명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60일간이나 도피행각을 벌인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여수시 안팎에선 오 전 시장이 잠적한 이후 경관조명업체 외에도 다른 사업 과정에서 비리가 저질러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돼 왔다.

한편,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측근인 주모(67)씨로부터 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의회 전현직 의원 16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경찰은 이날 오 전 시장의 측근이자 여수시 전 간부인 김모(여·59)씨에 대한 출장조사를 통해 주씨의 금품 살포가 오 전 시장의 지시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또 주씨가 지목한 의원 16명 가운데 10명은 돈을 받았고, 2명은 반환, 4명은 거절한 것으로 보고 주씨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함평 황금박쥐像 순금 진위 수사

경찰, 순금 사용량·순도 등 조사 … 함평군 "21k로 만들었다"

함평의 명물인 '순금 황금박쥐' 조형물이 순금으로 제작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함평경찰은 함평군이 제작한 황금박쥐 조형물에 대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의혹은 함평군이 황금박쥐 조형물을 만들고 남은 재료로 지난달 만든 알 모양의 조형물 '오복포란'에 사용된 금이 순금이 아닌 21k 합금으로 밝혀지면서 제기됐다. 오복포란을 제작하는 데 쓰인 금이 순금이 아니기 때문에 황금박쥐 조형물 역시 순금이 사용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황금박쥐 조형물 제작에 '순금'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우선 밝히고, 순금이 쓰였더라도 정확한 사용량과 순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황금박쥐 조형물은 최근 금값 폭등으로 재산가치가 제작 당시 30여억원에서 70여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만약 순금이 아닌 21k(순금의 87.5%)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가치는 60억원 대로 떨어진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황금박쥐 조형물에는 순금이 들어간 것이 맞다"면서 "황금박쥐 제작 후 남은 금이 21k 합금인 것은 조형물의 모양이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순금 162㎏에 은과 구리를 각각 9.25㎏, 13.88㎏씩 혼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금박쥐 조형물은 함평군이 멸종위기인 황금박쥐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서울 지역 모 대학 제작팀에 의뢰해 제작했다.

군은 조형물 제작 당시 순금 등 재료비 30억5000만원과 제작비 2억2000만원 등 총 33억원 가량이 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조직탈퇴 선배 집단폭행

조폭 3명 구속·4명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선배를 집단으로 폭행한 광주 모 폭력조직원 박모(23)씨 등 3명을 폭력 혐의로 구속하고 또다른 조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6월 5일 새벽 4시께 광주시 북구 유동 모 주점 앞에서 2년 전 조직에서 탈퇴한 선배 김모(24)씨가 훈계한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배우 나한일씨 징역 2년6월 확정

쌍나팔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배우 나한일(5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한 것과 관련된 배임과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배임과 나머지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지만 항소심은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쓰고 횡령액이 크지만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연합뉴스

광주시장 경선 여론조사 방해 신문사주 집유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여론조사 논란과 관련해 이용섭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역신문사 사주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26일 6·2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역일간지 H사 실질 사주인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허위사실 공표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김씨가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1일 광주시의회에서 H사의 불법 여론조사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섭 후보 측으로부터 '유리한 진술서를 써 달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유사석유 5만 6000ℓ 광주 운전자들에 유통

6000만원 챙긴 6명 검거

광주광산경찰은 26일 유사석유 수천만원어치를 광주지역 운전자들에게 유통시킨 중간 공급책 김모(28)씨와 판매책 박모(28)씨 등 6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초부터 대구지역에서 톨루엔과 솔벤트를 혼합한 유사석유 18ℓ 들이 3000통(시가 6000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광주 판매책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 등 판매책들은 김씨가 공급한 유사석유 총 5만6000ℓ를 광주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대구지역 제조책들에게 18ℓ 용기 한 통에 1만4500원을 주고 유사석유를 구입한 뒤 광주에서 통 당 2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석유 제조공장이 있는 대구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광주지역의 최종 판매 조직들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고스톱' 나주교육청 5명 직위해제

전남도교육청은 업무시간 중 상습 도박판을 벌인 나주 교육청 공무원 5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직위 해제된 해당자는 과장급인 A(59)씨를 비롯해 행정 6급 2명, 기능 6급 1명, 기능 8급 1명 등 총 5명이다.

A 과장 등은 지난 6월28일부터 최근까지 29회에 걸쳐 일과 시간 당직실 등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을 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색소폰 연주 30대 악사 생활고 고민 목 매 숨져

지난 25일 오후 5시40분께 박모(37)씨가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원룸 거실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윤모(18)군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윤군은 경찰에서 "친구가 사는 근처 원룸에 놀러왔는데, 창문 너머로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광주 모 라이브카페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박씨가 최근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해 왔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